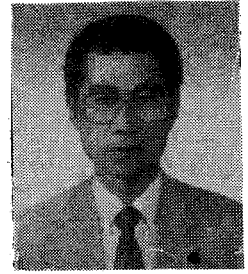


## 한국양육의 발전방안



농학박사 과 중 형  
경상대학교 농과대학교수  
본회연구위원회 부위원장

### 1.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양육 역사는 40년여로서 8.15 해방후 만주계 꽃사슴을 적은수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는 사육두수가 10여만 마리와 15,000kg의 녹용을 생산하는 양육 국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에서 양육으로 성공한 뉴질랜드는 20여년이란 짧은 세월동안이지만 국책적으로 양육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육두수가 무려 80여만두에 20,000kg 이상의 녹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양육대국으로 군림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양육의 초기단계에서는 사슴이 희귀동물이고 녹용은 한방에서 상류층의 보약제로 쓰여지고, 고가였던 것이 사슴의 두수가 점차 불어나고 국민의 GNP가 향상되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이제 녹용은 대중적인 보약으로, 사슴은 농가의 부업적 축종으로서 가축화되어 전국도처에서도 사슴목장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사슴의 증식율(약25%)이 높아 이대로 가더라도 1995년경에는 약 30만두의 사슴에서 약 50,000kg의 건녹용을 생산하여 국내수요의 50%를 충족할 전망이며 2000년대 초에는 약 100만두에 달하고, 가축중 그 두수가 많은축에 속하며 년산 15kg의 건녹용을 생산 함으로서 국내 수요를 완전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이 양육업을 돌아켜보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나, 학계의 연구나 지원이 없이 양육인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다.

그러나 2000년대를 향하는 우리나라의 양육산업은 이대로 가서는 UR 협상과 농축산물의 개방화 물결에서 이겨나아 갈 수 없음을 명약관화 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양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첫째 정부가 양육산업에 대하여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여 관계법규를 보완, 수정하여 건전하게 육성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둘째는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사양기술의 개발을 해야하고, 셋째는 생산물의 가공과 이용, 유통의 체계를 수립해야하며, 넷째 우량종축의 번식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하고, 다섯째는 산학협동체제로서 양육산업의 발전에 대처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외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이 다섯가지의 면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언급코져 한다.

### 2. 정책적인 면

1) 사슴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자면 가축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축산의 한분야로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축산법 제 2 조 1호에 보면 “가축”이라함은 사양하는 소, 말, 양, 돼지 기타 농림수산부

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 등을 말한다. 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 1조 짐승의 종류등에서 “기타 농수산물령이 정하는 짐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말한다. 2호에서 사양하는 멧크, 사슴, 메추리, 여우, 및 꿀벌로서 사슴이 가축의 취급을 받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으나 산업적으로는 그 위상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도 농수산부에서 간행한 측정 27464-18 (90. 1. 23)에 의하여 축산진흥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134페이지에 보면 처음으로 양육사업 육성지도가 한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슴사육업이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축산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사슴사육자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축산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사슴사육자 단체를 중심으로 사슴 생산물의 수급과 판매체제를 정립하고 생산물의 처리, 가공 및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하며 사슴분양 및 사양지도 체제를 협회를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하며 사슴분양 및 사양지도 체제를 협회를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지도, 사슴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라 사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간 잡종번식등으로 교잡종 생산보급 장려라 되어 있다. 특수가축란에 포함된 양토업 육성지도에 5억원, 양봉업육성에 7억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육업의 육성지원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후 육성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산의 확보가 요망된다.

1990. 6. 22 발효된 축산장기발전대책에 의하면 2000년대에 축산업이 농업소득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굳히며 1990-2001

년간의 계획에 사슴산업에 관해서는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지원강화에서 특수가축의 축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득원 품목으로 육성, 수입대체 산업화 유도로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육업의 위상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양육산업의 발전의 기본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양육협회를 위시하여 양육인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본다.

2) 어떠한 산업이던 발전시키려면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양육산업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슴사육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슴의 증식계획, 녹용, 녹육의 수급, 조절 및 유통 등에 기준에 세우도록 해야한다.

3) 양육산업 세법을 개정하여 양육농가를 보호육성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슴이 기타 가축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 2항 별표3의 농가부업규모에는 면세되지만 사슴만은 부업규모의 면세사업의 혜택을 못받고 있으니 시정해야한다. 또한 특별 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과세율) 제3조 6호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10 동법시행령과세 물품 제3종 6호(자양강장품) 사항에는 녹용, 로알제리(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해구신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 2조(비과세) 3항에는 인삼사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하는 물품은 비과세로 되어 있다.

이상에는 인삼(원삼)은 인삼 사업법으로 로알제리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 받고있고 해구신은 국산이 없으니

녹용만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사양기술적인 면

1) 사슴의 사양기술에 대하여서는 자생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껏 사슴에 대한 품종별, 성별, 육성률 및 계절별에 따른 영양소 요구량의 기준을 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사슴 사료는 현재까지 남부지방에 있어서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육성우사료를 이용하는 것이 58.0%이고 비육우(축우용)사료가 17.8%, 사슴사료가 15.0%에 불과하며 현재까지는 사료업계에서 3개처가 생산을 하고 있고 양륙협동조합에서 일부생산되고 있으며 꽃사슴에 대한 수염류 이용에 관한 연구로 채식섭성에 대한 논문등 몇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있어 사양기술적인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기술적립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슴사료에 대한 계절별, 품종별, 성별 및 성, 육성률별로 영양소 요구량과 권장사료 배합표가 나와야 하리라 보며 본인등이 이를 위하여 연구하고 있다. 조사료의 이용에 대하여서도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산야초 이용이 26.6%, 수염류(관목류)가 25.8%, 목초류가 22.0%, 벼짚류 10.5% 기타 4.3% 이었다. 특히 겨울철 조사료의 이용에서 보면 칩건초가 30.0%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알팔파 큐브가 13.5%, 아카시아 건초가 12.5%, 콩각지 12.0%, 갈잎건초가 11.0% 기타 벼짚 등이 21.0%의 순이었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결핍하여 산야에 풀자원이 있어도 채취하여 사슴에게 급여할 인력이 없어 뻥히 보고 먹이지 못하고, 영양가 없는 벼짚이나 외화로 구입

되는 알팔파 큐브와 갈잎 등을 구입하여 먹이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이런면에 있어서 양륙농가의 경영형태는 가족단위로서 조사료의 자급자족이 되도록해야 만이 금후 닥아오는 수입개방에 대처해서 이겨나아가리라 믿는다.

2) 사료의 급여량에 대한 조사료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기준을 정하는데 품종에 따라가 32.5% 이였고, 체중에 의하여 급여하는 것이 23.4% 이었는데 사양체계에 대한 연구와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협회등에서 강습을 해야 되리라 본다.

3)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는 급만성 장염 및 설사와 고창증 등의 순으로 설사가 56.5% 이고, 고창증이 22.6%로서 소화기계통의 질병이 대부분으로서 자가치료가 69.2%로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치료를 하는 경향이나 전문적인 수의사에 의뢰하여 치료토록 지도해야 될것으로 본다.

### 4. 생산물의 가공처리 및 유통적인면

1) 양륙의 생산물에 대한 가공, 판매 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특히 영세양륙농가에게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녹용이나 녹혈에 대하여 경영의 년치가 오래된 농가는 알름알름으로 정해진 당골이 있어 양륙생산물을 판매하는데 그렇치 못한 신규양륙 농가는 생산물 판매에 애로가 많으며 때를 잃게되면 혈값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들 한다.

그러므로 도시근교의 농장에서는 녹용과 녹혈생산을 위주로 하고 교통이 불편한 도시와 먼곳에서는 자륙을 생산하는 체계가 되어야 하리라 보며 특히 품종에 있어서도

농가부업으로 꽃사슴 쪽이 유리하고, 전업적이고, 도시근교에서는 레드디어나 엘크를 사육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본다.

2) 녹용에 대한 가공 및 유통에 있어서 정부당국은 한약제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원료의약품)를 득한 업소에서만 취급하도록 하고 동업소에서는 규격화된 한약제를 제조,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동시설 기준을 대통령령 제281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녹용의 수급현황이 국산 품이 20% 이하이고, 수입품이 80%정도로 2000년초에는 국산으로 자급을 하기 위하여 양록산업을 육성발전토록 제도화되어야 함으로 사슴사육농가에서 절각한 생녹용(생녹용 판매를 생산당시 하지 못하여 원형대로 건조한 전지녹용 포함)은 당연히 축산물이므로 생산농가에서 자유롭게 팔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해야 하며 사육농가에서 생산된 사슴부산물(녹육, 녹신, 녹미, 녹피, 기타)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자 단체가 소정의 시설로서 허가를 얻어서 가공(제조 및 규격화)과 유통(판매장)을 하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정거래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녹용의 관능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여 규격표시에서 녹용명, 생산년도, 생산지, 수량을 명시하여 한의약업계에서 관행화 되는 상대, 중대 및 하대의 구분표시를 등급구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품종별로 성분과 효능, 규격의 구분을 제정하여 생산자의 소득과 소비자의 보호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유통과정에서 국내상품에 대한 불신과 외국상품에의 무조건 고가란 인식을 가지

도록 시정해야 하리라 믿는다.

## 5. 종축 번식적인 면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슴은 크게 나누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및 이의 잡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꽃사슴은 대부분 만주록(매화록), 일본계, 대만계가 유통과정에서 혼혈로 되어 체중이 60-90kg으로 생녹용 생산량이 조사에 의하면 평균 0.875kg로서 중국에 비하여 체격이 약 1/3적으며 녹용 생산량도 약 1/3 낮은 편이다. 최근 꽃사슴의 체구의 중대와 녹용의 증산을 위하여 꽃사슴과 레드디어(적록)을 교배시키고 있는데 그 F1은 체격이 약 1/3 정도 크며 녹용생산량도 약 50%정도 증산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육하고 있는 엘크중 우수한것은 생녹용 생산량이 약 15kg으로 캐나다 7kg, 뉴질랜드 5kg에 비하여 2-3배 증산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74-1975년에 뉴질랜드, 캐나다, 북미 등지로 부터 엘크와 레드디어 등이 도입되면서 교잡이 이루어져 각품종간 우성인자의 결합으로 녹용생산량이 우수한 엘크가 작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레드디어는 뉴질랜드와 비슷한 생산량으로 2-3kg정도라 할 수가 있다.

2) 축산물의 개방과 아울러 파도처럼 밀려오는 축산물에 대하여 농가소득증대의 대치작목으로 사슴사육이 유리하므로 농촌진흥청에도 관심을 가져 축산시험장에 꽃사슴을 도입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시험을 실시 할려고 하고 있고, 나아가 머지않은 장래에 국립종축원에서도 외국에서 우량한 종축을 도입하여 국내산 특히 꽃사

슴에 대한 혈액검신을 해야 되리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과대학 부설목장에서 우량한 사슴을 도입하여 우량한 종축을 작출할 것으로 믿으며 생산성이 높은 우량한 사슴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 7. 산학협동적인 면

과거에는 양록업은 돈 있는 사람이 사치스럽게 하는 산업으로만 인식되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이의 사육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녹용과 녹혈의 소비도 대중화되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증대사업의 대치 작목으로 사슴이 유리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커서 이제는 전국에 있는 농과대학 축산학과와 상당한 학과가 정규 교과목에 사슴학 또는 특수동물학중 사슴을 이론적으로나 실기를 다루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1990년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슴사육에 대한 모델개발을 위하여 용역을 주었으며 본인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축산시험장에서 1차적으로 꽃사슴을 10여두 도입하여 사육시험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에서는 1990년 2월 17일자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전문교수 15명과 축산시험장 야생동물원장, 사료업계 및 사슴목장장등 20여명의 연구위원으로서 6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문별로 사육관리, 번식육종, 가공, 이용, 초지, 사료, 위생진료, 경영, 유통등에 대하여 연구토록 되어 있으며 1991년도 사업으로서 사육관리 강습, 사슴사육교재발행, 정기회보 발간, 양록세미나 개최 및 양록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사

슴에 대한 정보와 학술적 실기 및 경험담 등 다양한 정보를 입수, 교환 할 수 있는 매개체인 월간사슴이 만시지탄이지만 1990년 4월호가 창간호로서 발행을 보게되어 양록인에 대하여 다시없는 스승과 벗으로 매월 발행을 고대하리라 사료되며 금후 일월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상에서 모든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산학협동체제가 이루어져 업계에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학계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현안문제점을 해결하여 다같이 양록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 가시적으로 큰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 8. 결 론

이상에서 한국양록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그외에도 많은 항목에 대하여 논급해야 할 것이나 지면관계상 이상으로 매듭을 짓는데 첫째는 양록인이 서로가 힘을 모아야 힘이 생기고 활력이 있으며 양록업의 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양록을 하는 농가는 한국양록협회의 산하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질서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양록농가의 권익을 보장 받으며 산학협동으로서 사양기술과 우량한종축의 보급, 생산물의 애용과 유통, 합리화된 경영의 도입, 위생과 질병, 합리적인 영양소의 공급과 사료의 개발과 이용 등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초에 100만두 사슴사육과 15만kg의 건녹용 생산국으로 군임 할 수 있도록 같이 손에 손잡고 노력해야 되리라 사료된다. ☆